

수필창간록

● 김관웅
저



연변대학출판사

수필창작론

김관웅 저

연변대학출판사

图书在版编目 (CIP) 数据

散文创作论/金宽雄著. —延吉: 延边大学出版社,
2006.3

ISBN 7-5634-2195-5

I. 散… II. 金… III. 散文-创作方法-高等学校-教材-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IV. I056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 (2006) 第 017021 号

散文创作论

著者: 金宽雄

责任编辑: 宋昌洙

封面设计: 金胜铉

责任校对: 文昌德

出版发行: 延边大学出版社

社址: 吉林省延吉市公园路 105 号 邮编: 133002

网址: <http://www.eabook.com> (东亚书城)

E-mail: eabook@eabook.com; eabook@hotmail.com

热线电话: 0433-2965690 传真: 0433-2732434

印刷: 图们市荣华印刷厂

开本: 890 × 1240 毫米 1/32

印张: 10.375 字数: 300 千字

印数: 1-3060 册

版次: 2006 年 3 月第 1 版

印次: 2006 年 3 月第 1 次

ISBN 7-5634-2195-5/I·308 (民文)

定价: 23.80 元

머 리 말

필자는 대학교 학생들에 대한 문학교육에 있어서 문학리론교육, 문학사교육, 습작(習作)교육 이 삼자는 술의 세발과도 같아 그중 어느 하나가 없어도 바로설수 없다는 삼족정립(三足鼎立)설을 이전부터 거듭 주장하여왔다. 우리 연변대학에서 문학리론이나 문학사교육은 그런대로 오래전부터 교과서도 있고 교수체계도 정연하지만 애오라지 습작교육은 흔히 실용문을 쓰는 교육에만 그쳤지 본격적인 문학창작교육은 부실하기 짝이 없어 교과서는 물론이고 교수체계마저도 제대로 정비되어있지 못한 실정인데, 이번 교수개혁에서 그 단서를 잡기 시작했다.

개가 쥐를 잡는것은 직분에 맞지는 않지만 고양이와 쥐를 안 잡으니 개라도 나서서 쥐를 잡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서양문학사 강의를 맡은 내가 학생들에 대한 습작교육을 주창하면서 《수필창작론》 교과서의 집필에까지 관여하게 되었다. 문학교육의 목적은 다원적이겠지만, 적어도 문학리론과 문학사 강의를 통해 기본리론과 기본지식을 전수하는 목적외에도 그것을 밑거름으로 삼아 글 쓰는 능력을 키워주는것도 하나의 중요한 목적인것만은 틀림 없는줄 안다. 지행합일(知行合一)의 철학명제가 대학의 문학교육에서 체현되자면 기본리론과 기본지식의 전수에 속하는 문학리론교육, 문학사교육과 기본기능을 습득하는 실천과에 속하는 습작교육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만 한다.

1999년 12월말 《연변일보》에 실린 본인과 김철호, 리임원 기자와의 대담에서 수필이 새로운 세기에는 문학의 왕좌에 앉게 될것이라고 예언한적이 있다. 그것은 작자의 인격과 체험의 진실을 듣고싶

어하는 현대인들의 욕구에 가장 잘 부응할수 있는 문학장르가 수필이기때문이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오히려 인간을 소외시키고 고독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었는데, 이런 불신의 시대에 진짜 인간의 고민과 웃음을 그릴수 있는것은 논픽션으로서의 수필밖에 없기때문이다. 그리고 수필창작은 시, 소설이나 희곡 창작과는 달라서 입문하기 쉬워 누구나 다 부담 없이 할수 있으며 글쓰기훈련을 하는 가장 좋은 장르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 책은 대학에서의 글쓰기교육에서 뿐만아니라 사회상의 수필창작을 하고있거나 수필창작에 입문해보려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좋은 참고서로 될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이 책을 저술함에 있어서 수필의 리론과 창작실제를 균형 있게 조화시키기 위해 힘썼다. 리론이 없는 실천은 라침판 없는 배와 같다는 명제가 수필창작론에도 그대로 적용되기때문이다. 수필의 기본리론바탕이 없이는 훌륭한 수필을 기대할수 없는 까닭에 우선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을수 없었다.

그렇다고 수필의 리론에만 치우치게 되면 수필의 예술성이 굳어지는 면도 없지 않은 까닭에 이미 전제한바와 같이 수필의 리론과 실제의 조화로운 표현에 관심을 갖게 된것이다. 수필론이 아니고 수필창작론인 이상 창작에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수필창작실천을 지도할수 있게 하고자 노력했다.

필자는 이 책을 쓸 때 되도록 량질의 영양을 지닌 동서고금의 명수필이나 필자의 수필을 레문으로 사용하고자 노력했다. 작자의 수필을 레문으로 넣게 된것은 필자의 수필이 결코 명작이라서가 아니라 자신의 창작품인 까닭에 창작동기, 창작과정 등을 가장 여실히 학생들에게 전달할수 있다는 리점을 가지고있고 또 강의중에서 가장 생동하게 현신설법(現身說法)을 할수 있기때문이다.

그리고 이 책에서 차용한 레문은 중국과 한국의 수필이 주종을 이루는데, 중국은 자고로 수필이 발달한 나라이고 또 중소학교나 대학들에서 익숙하게 접해왔다는 리점이 있어서였고 한국수필을 많이 차

용한것은 수필이란 워낙 미문(美文)이기때문에 그 문체적인 풍격을 번역을 하지 않고도 직접 접할수 있기때문이었다. 중국이나 기타 외국의 수필은 모두 필자가 번역한것들이며 그중 외국 수필은 한문(漢文)으로부터 중역(重譯)을 했기에 원작의 맛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점들도 아주 많으리라고 사료된다.

이 《수필창작론》은 필자가 근 10년동안 연변대학의 강단이나 연변작가협회에서 주관하는 연변민족문학원 작가양성반에서 강의해온 내용을 다시 정리하여 집필한 책이다. 필자는 이 책의 건강한 탄생을 위해 많은 정성을 바쳤다. 앞으로 이 책이 대학의 강당에서, 또는 수필을 지망하는 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서, 그리고 수필을 리해하고자 하는 광범위한 독자들로부터 사랑받기를 바라고 또 그러한분들에게 유익할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 《수필창작론》의 집필 과정에 한국 황송문교수의 《수필창작론》과 장백일교수의 《현대수필론》, 중국 림비(林非)의 《림비 수필을 론함(林非论散文)》, 우군(于君)의 《산문장고(散文讲稿)》 등 기존 수필론이나 수필창작론을 많이 참고하고 인용했음을 밝혀두며 따라서 필자의 이 책은 독창성을 운운하기는 아주 어렵다는것도 동시에 밝혀둔다.

필자의 이 책을 떡에 비유한다면 필자 한사람의 힘에 의해 만들어진 떡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힘을 빌어 만든 천인떡(千人糕)이다.

김관웅

2005년 12월 2일

연길에서

차례

제1부 수필의 원리

제1장 수필이란 무엇인가?	3
1. 수필의 정의	4
2. 수필의 본질	7
3. 수필의 특성	12
제2장 수필의 종류	39
1. 여러 나라들에서의 수필분류	39
2. 중국의 립비와 한국 구인환의 수필분류의 비교	42
3. 수필의 4분법	43

제2부 수필의 창작

제1장 수필의 소재와 제재	59
1. 수필의 소재	59
2. 수필소재의 축적	70
3. 소재로부터의 예술적발견	75
4. 수필의 제재(題材)	79

제2장 수필의 주제 및 그 설정	87
1. 수필의 주제	87
2. 수필의 주제의 설정	89
3. 주제설정에 있어서의 현대성문제	96
제3장 수필의 구성 및 그 요소	107
1. 수필의 구성	107
2. 수필의 구성요소	111
제4장 수필의 구성과 설계	125
1. 현실형구성풍격	127
2. 리상형구성풍격	128
3. 사의형구성풍격	129
4. 상징형구성풍격	131
5. 비유형구성풍격	134
6. 괴이형(怪异型)구성풍격	138
제5장 구성형태의 선택	149
1. 진주목걸이형구성형태	149
2. 병풍형구성형태	161
3. 대비형(对比型)구성형태	168
4. 대화형(对话型)구성형태	171
5. 전달형구성형태	172
6. 희곡형구성형태	176
제6장 수필의 문체	181
1. 간결체(简洁体)	181
2. 만연체(漫衍体)	187
3. 강건체(刚健体)	190
4. 우유체(优柔体)	193
5. 건조체(乾燥体)	195
6. 화려체(华丽体)	199

제7장 수필창작과 기교	203
1. 의도와 표현	204
2. 수필의 산만성과 통일성	206
3. 수필의 무형식의 형식	209
4. 수필의 무기교의 기교	212
5. 수필의 무질서의 질서	215
6. 수필의 제목	216
제8장 수필창작과 창작주체의 사유	219
1. 수필과 상상 (想像)	219
2. 수필과 련상 (联想)	226
3. 사유방식과 수필창작	238
3. 유모아, 위트, 풍자, 패러디와 수필창작	258
제9장 수필의 언어적묘사	295
1. 사실성(写实性)묘사	295
2. 감각화, 정서화 묘사	298
3. 개괄성묘사	302
4. 구체화묘사	305
5. 설명적묘사	309
6. 암시적묘사	310
7. 인물 및 성격 묘사	313
8. 자연환경묘사	315
9. 사회환경묘사	319
후기	323

제1부

수필의 원리

제1장

수필이란 무엇인가?

오늘날 조선어문화권에 사용하는 수필(隨筆)과 중국에서 사용하는 산문(散文)이란 개념은 같은 점이 있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다.

중국에서 산문의 개념은 고금(古今)이 다르다. 고대중국에서 산문은 주로 운문(韻文)이나 병려문(駢麗文)과 구별되는 산체(散體)의 글을 지칭했으므로 그 포괄범위가 아주 넓었는바 수필 역시 산문의 한 종류였다. 그러나 중국에서의 현대산문은 시, 소설, 희곡과 병렬되는 하나의 문학장르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축소되었다. 이리하여 중국에서의 현대산문의 개념은 지금 한국이나 조선에서 사용하는 수필의 개념과 거의 비슷하게 되었다.

동양에서의 산문(현대산문을 가리킴)이나 수필을 가리켜 서양에서는 에세이(essay)라고 하는데 이 장르에 관한 동서양의 연원은 비슷하다. 동양의 경우 수필이라는 용어를 맨처음 사용한 이는 남송의 홍매(洪迈)로서 그가 쓴 《용재수필(容齋隨筆)》 서문에 《뜻한바를 수시(隨時)로 기록하며 앞뒤 차례가 없으므로 이름 붙여 수필이라 부른다.》는 글이 있고 서양의 경우에는 몽테뉴가 《에세이(essay)》를 자기의 책이름으로 내세운바 있다.

서양의 《에세이》는 브리태니카에 나와있는바와 같이 《보통 산문으로서 적당한 길이의 작문(作文)이며 작자가 선택한 주제하에 그 주제와 작자와의 관계를 별 부담 없이 취급한 글》로서 비평문이라든지, 가벼운 소론문도 포함시키고있는바 고대중국에서의 산문의 경우와 아주 비슷하다.

1. 수필의 정의

수필을 정의한다는것은 수필이 지닌바의 속성을 밝힘으로써 다른 장르개념과 구분짓고 한정짓는 작업이라고 할수 있다. 아래에서 몇가지 사전에서 나타난 정의를 살펴보기로 하자.

《중국대백과전서》(중국문화 2)에는 《현대산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리고있다.

《현대산문이 소설, 희곡과 구별되는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그것이 진실한 인물과 그 진실한 인물에 의한 진실한 사건을 쓰거나 혹은 진실한 인물과 그 진실한 인물에 의한 진실한 사건의 토대 위에서 적당한 가공을 한다는 점이다. 산문중의 인물이나 사건은 반드시 생활중에서 진실하게 존재하는것이거나 또는 적어도 상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산문에서 허용되는 예술적가공의 정도는 보고문학보다는 크지만 인물이나 사건의 주요한 면은 객관 사실에 부합되어야 하지만 보고문학처럼 묘사되는 인물의 언행이나 시간, 지점, 사건들이 모두 반드시 정확하고 자그마한 오차도 없어야 함을 요구하는것과는 다르다. 산문에서의 〈나〉는 작자 자신으로서 소설에서의 〈나〉와는 아주 다르다. 산문이 진실하고 절실하고 신속하게 현실생활속의 진실한 사건과 문제를 반영하고 직접 작자의 인식과 감정을 표현하기에 우수한 산문작품은 소설이나 희곡 등 양식에 비해 마치 기병(騎兵)처럼 빠르고 날렵한 특징을 가지고있다.

산문이 소설이나 희곡과 다른 또 하나의 특징은 그것이 현실생활을 반영함에 있어서 생활에 대한 작자의 감수를 표현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따라서 인물이나 이야기의 완성성을 크게 요구하지 않는 까닭에 소재선택이나 구상 면에서 령활성과 비교적 강한 서정성을 갖고있다.

이밖에도 산문은 서사, 서정과 의론을 한데 융합시킬 수 있고 아울러 자유롭고 명활하기에 서사, 서정과 의론 이 삼자 중에서 어느 한쪽에 편중할수도 있으므로 그 표현형식 역시 소설이나 희곡에 비해 보다 다종다양하다.》¹⁾

《브리태니카》에는 <에세이(essay)>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리고있다.

《에세이는 보통 편폭의 글로서 류창하고 가벼운 필치로 한가지 단일한 재제를 다루는데, 흔히 작가개인의 경력과 견해를 표출한다. 이러한 형식은 16세기후기 프랑스작가 몽테뉴에 의해 창조되었다. 이러한 문체는 일찍 16세기이전에 공식 혹은 비공식적인 작품형식으로 존재하였었지만 몽테뉴는 깊고 진솔하고 진지한 작품으로 개인수필에 표준을 세워놓았다. 그는 탁월한 기교로 생활속에서 익숙한 사물에 대한 자신의 환상을 포착하였으며 생동하고 흡인력 있는 방식으로 그것들을 기록하였다. F. 베이컨은 영국의 첫 위대한 수필작가인데, 그의 <수필>은 몽테뉴의 작품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F. 베이컨의 수필은 비교적 엄숙하여 거의 잠언집에 가깝다.》²⁾

《세계문예대사전》(편찬자대표 문덕수)에는 《수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있다.

《수필이란 말은 영어의 essay의 역어로 생각하나 동양에서는 일찍부터 쓰였으니 중국 남송때 홍매의 <용재수필>의 서문에 <나는 버릇이 게을러 책을 많이 읽지 못하였으나 뜻하는바를 따라 앞

1) 《중국대백과전서》(중국문학 2), 687페이지, 중국대백과전서출판사, 1986년.

2) 《브리텐백과전서》6권, 중국대백과전서출판사, 1999년, 125페이지.

뒤를 가리지 않고 써두었기때문에 수필이라고 일컫는다.(子习懒, 读书不多, 意之所之, 随即记录, 因其先后, 无腹诤次, 故目曰随笔)>라는 말이 보이고, 한국에서는 박지원이 연경에 다녀갔다와서 쓴 <열하일기>에 일신수필(弼迅隨筆)이라는것이 처음으로 보인다. 프랑스어의 *essais*에는 시도(试图), 시험(试验)의 뜻이 있는데, 이 말은 <계량(计量)하다>, <음미하다>의 뜻을 가진 라틴어 *exigere*에 그 어원이 있다. 영어의 *essay*는 프랑스어의 *essai*에서 온 말이다. 에세이라는 말을 작품제목으로 처음 쓴 사람은 프랑스의 M. D. 몽테뉴이며, 그의 <수상록(Las Essais)>은 에세이라는 제목을 붙인 서책으로서 서양에서의 최초의 저서이다. 어원에서 볼 때 동서의 수필의 개념은 거의 일치한다. 수필은 일반적으로 사전에 어떤 계획이 없이 어떠한 형식의 구애를 받지 않고 자기의 느낌, 기분, 정서 등을 표현하는 산문양식의 한 장르이다. 그것은 무형식을 가진 시도로서 비교적 짧으며, 개인적이며, 서정적인 특징을 지닌 산문이라고 하겠다. 전기의 홍매의 정의나, <수필은 한 자유로운 마음의 산책, 즉 불규칙하고 소화되지 않는 작품이며, 규칙적이고 질서 잡힌 작문이 아니다.>라는 S. 존슨의 정의, <수필은 마음속에 표현되지 않은 채 숨어있는 관념이라든지 기분, 정서 등에 상응하는 유형을 말로 창조하려고 하는 무형식의 시도다.>라는 h. 리드의 정의 등도 모두 대동소이하다.》³⁾

우의 사전적의미가 가리키듯이 수필은 《붓 가는대로 쓰는 글》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물론 여기에도 수필이 문학의 한 장르인 이상 예술적가치가 있는, 문학으로서의 본질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가 붙는다는 전제하에 그렇다.

3) 편찬자대표 문덕수 <세계문예대사전>, 한국 교육출판공사, 1994년 판, 1012페이지.

2. 수필의 본질

프랑스의 비평가인 알베레스는 수필을 가리켜 《지성에 바탕을 둔 정서적, 신비적 이미지의 문학》이라고 했다. 이 말은 백번 타당한 말이다. 짙막한 이 말에는 《지성》과 《정서》가 내포되어있기 때문이다.

인간에게는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지적인 욕망이 있는가 하면, 느끼고 감흥하는 정적욕망이 있으며, 이러한 욕망들을 조절하거나 절제하는 의지적욕망이 있어서 이 욕망들이 서로 균형 있게 조화하면서 공존하고있음을 알수 있다.

이 세가지 내적인 욕망은 외적으로 진리를 추구하기도 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기도 하며, 선을 추구하기도 하는데 이 내적인 지(知), 정(情), 의(意)에 의한 외적인 진(真), 선(善), 미(美)의 추구는 수필에 있어서도 반영되는데 이 본질문제가 정리되지 않기때문에 혼란이 야기되는것으로 보인다.

가령 수필에 있어서 중수필(重隨筆, 영어로는 포멀 에세이라고 함)이라야 진짜수필이지 개인적인 감정발로로 나타나는 경수필이나 연수필은 지양되어야 한다거나 하여 자기의 취향이나 신념에 따라 혼란이 생기기도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 점을 잠시 언급하고자 한다.

수필의 본질은 자유로움이지만, 그 본질은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 《무엇》이다. 만일 논리적인 언어를 리용해 쓴다면 피천득의 <수필>이라는 글보다도 본질적 접근이 더 어렵다. 따라서 필자의 <수필적인간>이라는 글을 통해서 그 본질에 접근해보려 한다.

수필적인간이란 먹을것(소재)을 찾아나서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일단 걸려든 먹이(재재)를 놓치는 일은 없이 알뜰하게 요리를 해내는 솜씨를 지닌다. 그렇다고 해서 그 솜씨(기교)가 류별나게 따로

있는것은 아니다. 그것은 마치도 나물을 무치는 이(작자)의 손에서 맛이 우리나라듯이 주물러대는 손놀림(묘사력), 그러니까 무형식의 형식이랄가, 무기교의 기교에서 묘한 맛이 우리나라것이다. 거미가 줄을 늘어놓듯이 어디서부터 시작하여 어디서 끝나는줄도 모르게 해내는 솜씨, 그 보이지 않는 솜씨가 그에게는 분명히 있다. (생략)

그는 정석(定石)을 잘 놓는다. 욕심으로 눈을 가리지 않은 채 정석을 놓기때문에 많은것을 차지하게 된다. 옆에서 누가 혼수를 하려 들어도 여간해서는 그 혼수에 응하지 않는다. 그는 어디까지나 자기의 생각대로 정석을 놓아가는편에 속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많은 이야기를 귀담아들으려고 하는 귀를 지니고있다. 그는 시인이나 소설가의 얘기를 즐겨듣는다. 마치 닭(작자)이 조개껍질(재제)이건 모이(소재)건 닥치는대로 먹지만 매끈하고 곱게 생긴 계란이라는 제3의 새로운 형태(작품)를 낳듯이, 종교적신념이건 철학적사상이건 일단 그속에 들어가 용해(미적경로)되면 새로운 형태의것(수필)을 창조하게 된다.

그의 동작은 완만하다. 그런데 그 완만함으로 인해서 전체를 포용하게 된다. 소설적인간이 남성적이요 동(動)적이라면 수필적인간은 여성적이요 정(靜)적인 인간이다. 그는 마치 흙과 같은 성질을 가진다. 그것은 모든 생물에 리용되는 피동체이다. 그러면서도 결국에 가서는 그것들을 포용하듯이 결국에는 능동적인 행동이상의것을 찾아내는 마력을 지니게 된다. 수필적인간, 그는 먹이를 찾아 해매지 않으면서도 완만한 동작으로 점령해 들어가는 바보스러운 천재라 할수 있을것이다.

시, 소설, 희곡, 평론과 더불어 하나의 문학장르로서 독립되는 수필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 물음에 한마디로 대답한다는것은 무리일것이다. 시가 운물적, 관조적이요, 소설이 서술적, 설명적이요, 희곡이 조직적, 활동적이라면 수필은 무형식으로서 인생을 이야기한다고 할수 있다. 그러므로 우선 수필에는 아름다운 시가 있어야 한다. 날카로운 풍자는 물론 가벼운 풍자가 있어야 하며, 따끔한 비평과 진솔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 인생을 관조(觀照)한다는것은 인생을